

한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분석 및 동향

김성진*, 최준원^o

*명지전문대학 ICT융합공학과,

^o명지전문대학 ICT융합공학과

e-mail: ict214548@mjc.ac.kr*, chlwnsdnjs1228@naver.com^o

Analysis and Trends of Korea's Trade Balance D`eficit

Sung Jin Kim*, Jun Won Choi^o

*Dept. of ICT Convergence Engineering, Myongji College,

^oDept. of ICT Convergence Engineering, Myongji College

● 요약 ●

한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4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무역수지가 2개월 이상 지속된 적은 2008년 세계경기 위기 이후 처음이다. 수출 부분도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액이 급감하면서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각국의 수입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수출 감소·무역적자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수지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에 의하여 무역수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Bigdata Analysis), 무역수지(Balance of trade), 인플레이션(Inflation), 제로 코로나(Zero corona)

I. Introduction

한국은 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수출과 수입 교역 확대가 한국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 할 수 있는데, 2022년은 우리 무역이 격변을 맞이한 해이다. 코로나19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트러블이 이어지면서 해외시장이 큰 위기에 빠졌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무역 규모를 기록할 것이 전망되며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것도 9월 중순으로 사상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무역이 격변을 맞이한 이유는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출은 1~11월 누적 규모가 6,290억 8,000만 달러에 달해 사상 최초로 11월에 수출 6,000억 달러 규모를 달성했지만 같은 기간 수입 규모가 6,716억 2,100만 달러에 달해 누적 연간 적자가 425억 4,100만 달러에 달했다. 우리 무역적자는 2분기부터 계속돼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며 이는 197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에서 이러한 난항을 겪으면 이는 경제위기에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수지를 변동시키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도출된 요인들에 적합한 문제점들의 근거를 제시하여 향후 무역수지를 완화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동향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액의 증가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특성상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원 부국들에는 오히려 수출액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전후를 비교하여 자원이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원인) : 코로나1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등이 원인이다.
- (영향) : 한국은 자원 빈국이면서 제조업 수출국이기때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Table 1. 자원에 따른 각국 무역수지[2]

자원빈국	등락률	자원부국	등락률
한국	적자 전환	브라질	12%
일본	적자 전환	호주	14%
독일	-59%	베트남	109%
대만	-12%	캐나다	122.4%

2. 무역국의 경기침체가 무역수지에 주는 영향

무역은 국가 간의 수출입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입 수요가 변동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무역 상대국의 경기에 따라 변화하는 무역수지 변동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 (원인) :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방역 시행, 중국의 경기 침체 요인들이 겹치면서 내수 성장이 주춤하고 있다.
- (영향) :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 잡으며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3. 수출 부분에서의 부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무역적자를 들어선 것은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선 것이다. 즉 수출 부진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가속화되었다고 가정하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과 무역상대국의 수출 협약(규제)을 토대로 무역수지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원인) : 국내 수출에서 1/5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적신호, 일본의 수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의 원인이다.
- (영향) : 해외 소득수준이 낮아지며 국내 수출에 대한 수요도 낮아져 무역수지에 타격을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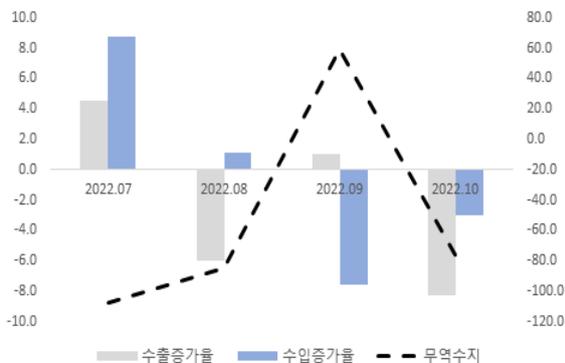


Fig. 1. 수출입 증가율에 따른 무역수지 <단위: %, 천불>

III. The Proposed Scheme

1. 한국의 5대 무역국의 미래 지향성

한국의 5대 무역국은 중량 기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위의 기댓값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기댓값을 도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5대 무역국의 기댓값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기댓값	-653,914.26	712,615.54	410,509.44	-253,171.4	-43,975.76

미국과 베트남은 준수한 기댓값으로 2022년 기준 한국의 무역 흑자 상대국 중 각각 1, 2위를 선점했다. [3] 반면, 중국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제로 코로나 방역 시행으로 인해 중국의 부동산 불안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내부 경기침체리는 원인으로 기댓값이 낮게 나왔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이유로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도 기댓값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을 확인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대외적인 여파로 일시적으로 기댓값이 크게 변동될 수는 있으나 이는 자원 빈국인 한국의 약점이며 앞으로도 있을 이러한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한국 무역수지는 이미 하반기부터 적자에 들어섰다. Fig. 3을 보듯이 현재 한국의 상황은 최대 교역국에 파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듯 주요 전략물자의 단일국가 의존도가 높으면 순식간에 교란 상태에 빠질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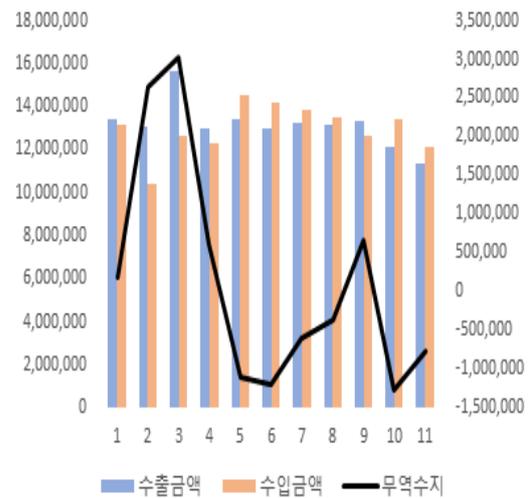


Fig. 3. 중국으로부터의 한국 무역수지 <단위: 천불>

이처럼 주 무역국들과의 공급망 트러블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무역은 쉽게 휘청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은 큰 위기에 접어들었고, 당분간은 이 위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 반도체와 13대 주력 품목 추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과 같은 원자재를 제외하고 한국의 13대 수출 주력 품목들의 추이를 분석하였을 때는 Table. 3과 같은 통계가 나온다.

Table 3. 핵심 수출품의 수출증감률 <단위: 억 달러, %>

	철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일반기계
수출액	26.9	17.4	40.7	16.8	114.9	40.1
증감률	-21.1	-19.9	-15.1	-7	-5.7	-1.5

현재 수출증가세둔화 및 원자재가격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13대 주력 품목의 수출은 전 세계 시장에서 4위를 기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한국 수출경쟁력도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무역수지 적자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의 약화라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중국과 같은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의 트러블로 인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한 것이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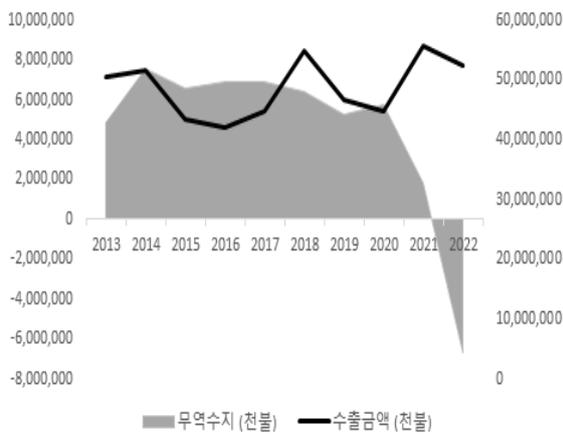


Fig. 4. 한국의 10년간 수출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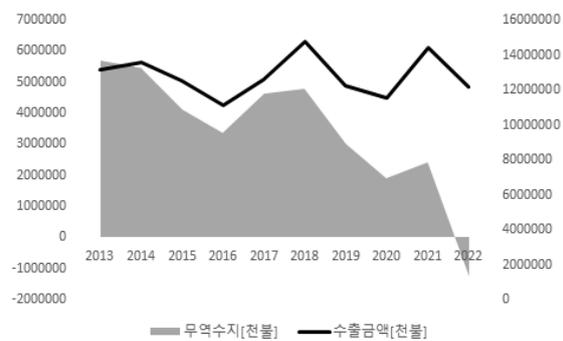


Fig. 5. 중국의 10년간 수출 추세

한국의 수출 추세가 하락한 것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문제라면 한국과 같은 수출 추세가 다른 국가들도 일어날 것이다.

Fig. 4와 Fig. 5를 통해 알 수 있듯 10년간의 수출의 폭락, 회복, 둔화, 하락의 장기적인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며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1]

그렇기에 현재 한국의 수출 부진은 유가 급등 등 세계적인 대외 변수가 원인인 측면이 크다. 특히 한국과 같은 자원 빈국은 전체 수입에서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단기적인 수출의 향방은 에너지값 사정에 달렸다고 분석된다.

IV. Conclusions

해외 소득수준이 낮아지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이다. 한국 전년 대비 수출은 상승이지만 수입 상승 폭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이다. 제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트러블로 인하여 수입 수요가 감소해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입은 것이다.

총수출의 약 1/4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이 중국과의 공급망이 틀어지면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입는다. 그렇기에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 중국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중국의 경제 상황, 무역정책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이번 사례처럼 글로벌 외부 충격에 영향이 큰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수출 대상 국가의 다각화를 통해 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춰 수출상대국과 수출 품목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Lee, S. Y. (2017). Korea's recent slump in exports and recovery: Structural Causes and Features (Associate Research Fellow, Trade and Investment Policy Team, Trade and Industry Headquarters). 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bid=0003&list_no=3349&seq=1
- [2] Jho, H. H, Jung, S. W. (2022, May 20). Trade balance, resource rich countries laugh and technology industries cry. the overall economy. B02Cotton. <https://blog.naver.com/amellia011/222739794690>
- [3] GENSTORY, Japan is not the largest trade deficit partner. <https://blog.naver.com/hjh8036/222950921525>, 2022-12-17
- [4] A dense data forest, Discrete probability variables, expected values of continuous probability variables,

calculating variance, <https://lovelydiary.tistory.com/440>,
2022-12-07

- [5] Yong-Jung, Son. (2012) Determinants of Trade Balance between Korea and FTA Promoters(Chosun University).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2376957>
- [6] Park Min-sun and Kang Sam-mo (2022). Research on Social Sciences Vol. 29, No. 2 7-26.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11082168>